

HEALING

인도양의 달콤한 꿈
노쿠 몰디브 리조트

NOKU MALDIVES RESORT

맨발로 해변을 걸었다. 하얗게 빛나는 산호모래에 발자국이 고스란히 찍혔고, 밀려오는 바닷물이 금세 그 자국을 지웠다.
형형하게 빛나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수상비행기. 그동안 꿈꿔왔던 몰디브가 그곳에 있었다.

EDITOR + PHOTO 엄지희 SPONSORED BY (주)젠트레블 070-4888-3141



소박한 화려함,
노쿠 몰디브 리조트

긴 비행 끝에 겨우 도착한 말레공항에서 수상비행기로 같이탔다. 그리고 수상비행기에서 다시 스피드보트로, 노쿠 몰디브 리조트까지 가는 시간은 경유 대기 시간까지 합쳐서 거의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멀고도 먼 길을 날아서 도착한 이곳은 섬 안의 작은 마을 같았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워터 빌라와 수풀 속에 숨어 있는 비치 빌라, 레스토랑, 바, 스파, 헬스장과 워터스포츠센터까지, 전체적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소박하고 정다웠다. 50개의 빌라와 150여 명의 스태프들. 투숙객과 스태프의 비율이 1:2로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이 가능한 섬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내가 자주 마시는 음료를 기억하고 알아서 가져다준다던지, “오늘은 어땠어?” 또는 “몰디브를 잘 즐기고 있니?” 라는 상냥한 인사를 건네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준다. 그렇기에 그들도 나의 이름을, 나도 그들의 이름을 외울 수밖에 없었던 노쿠 몰디브 리조트. 화려하면서도 소박하고, 한적하면서도 왁자지껄한 이곳은 우리가 상상하던 낙원과 다르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쓰러지듯 잠이 든 후 다음날 아침, 일어나 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커튼을 활짝 치고 창문을 열어 본 것.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Pool과 그 너머 수풀 사이 길로 밀려올라오는 하얀 파도가 보였다.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 바다로 걸어가니 하얀색에서 옥빛으로, 에메랄드빛 그리고 푸른빛으로 완벽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몰디브의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주변은 야자나무와 이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름 모를 수풀들 뿐. 해변에 떨어진 산호 조각과 나뭇잎, 머리 위로 날아가는 과일박쥐를 보며 먼 외딴 섬에 홀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고, 그제야 몰디브에 왔다고 실감했다.

노쿠 아일랜드에서 머무는 동안 집이 되어준 비치 풀빌라는 넉넉한 크기의 개인 풀과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으로는 욕실, 우측으로는 침실이다. 욕실은 천장의 1/3이 없다. 야외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고스



때로는 섬을 한바퀴 걸으며 산책을 하고,
해변에서 물장구를 치고,
바에서 모히또 한 잔을 마셨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몰디브를 경험하게 되는
노쿠 몰디브 리조트





란히 들으며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때때로 작고 귀여운 도마뱀이 벽을 기어 다니기도 한다. 욕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중앙의 하얀 욕조. 더위가 한창인 대낮에는 수영 대신 이곳에 물을 가득 담은 후, 준비된 목욕소금을 넣고 여유롭게 목욕을 즐기면 된다. 물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덤이다. 침실은 블랙&화이트, 모노톤의 모던한 인테리어와 나무가 전해주는 따듯한 분위기가 편안하다. 특별하게 튀는 디자인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소박한 분

위기같지만 언제든지 몰디브 바다를 볼 수 있으니 오히려 화려한 느낌이다. 객실에 TV는 없다. 몰디브에 왔으니 방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몰디브를 한껏 즐겨달라는 노쿠의 바람이 느껴졌다. 아침부터 풀에서 수영을 하고, 미니바에 준비된 커피를 내려 마시며 빈백에서 책을 읽었다. 때로는 섬을 한 바퀴 걸으며 산책을 하고, 해변에서 물장구를 치고, 바에서 모히또 한 잔을 마셨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몰디브를 경험하게 되는 노쿠 몰디브 리조트.

info

Noku Maldives Resort

노쿠 몰디브 리조트는 비치 빌라^{Beach Villa}, 비치 풀빌라^{Beach Pool Villa}, 비치 선셋 풀빌라^{Beach Sunset Pool Villa}, 비치 투 베드룸 풀빌라^{Beach Two-bedroom POOL RETREAT}, 워터빌라^{Water Villa}, 워터 풀빌라^{Water Pool Villa}, 워터 선셋 풀빌라^{Water Sunset Pool Villa}까지 총 7가지 타입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2개의 레스토랑과 2개의 바, 스파, 워터스포츠, 풀, 피트니스센터, 도착 라운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www.nokuhotels.com/maldives



The time of the *Noku island*

노쿠에서의 시간은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활기차다. 해변의 선 베드에 누워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스크와 스노클링만 낀 채 첨벙첨벙 물속 세계를 탐험하며 기쁨의 비명을 지르는 이도 있다. 한적한 휴식과 활기찬 즐거움까지 모두 전달하는 노쿠 몰디브 리조트에서의 시간들.



언제라도 ok, 몰디브의 바다 속으로

- 다이빙&워터스포츠 센터에서는 유료로 스노클링, 돌핀 크루즈, 선셋피싱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제공한다. 그
-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몰디브가 품은 천혜의 바다를 마주할 수 있는 스노클링과 해 질 무렵에 즐기는 줄낙시 체험이다. 스노클링 예약 시간에 맞춰 워터스포츠 센터를 방문하면 핀과 마스크, 스노클, 구명조끼를 준비해 준다. 장비를 챙겨 배에 오를 때 배의 아래층에 앉아도 좋지만 기왕이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 자리를 잡는 것을 추천한다. 편안한 지붕에 앉아 배가 달려가는 방향을 바라보다 보면 수상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또 다른 풍경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주변에 스쳐지나가는 섬, 절고 또 열계 변하는 바다 색, 수평선에 떠 있는 구름과 함께 어찌면 멀리서 헤엄치는 돌고래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스노클링 포인트에 도착하면 워터스포츠 센터 크루들이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노클을 입에 물고 얼굴을 바다로 집어넣은 다음 발장구를 치면 어디로든 헤엄쳐 갈 수 있다. 몰디브의 바다 속에서는 산호 사이에 숨어 있는 크라운피쉬가 흔히 보이고 노랑고 파랑고 붉은빛을 내는 각종 열대어들이 역시 근처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다. 운이 좋다면 거북이 또는 거대한 가오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줄낙시는 까치놀이 분홍빛으로 아름답게 질 무렵에 시작된다. 몰디브 전통 낚시 방법인 줄낙시를 몰디브인에게 배운 후 바로 실전 투입이다. 낚시 바늘에 두툼한 생선살을 미끼로 걸고 바다로 던지면 끝. 그 다음부터는 모든 감각을 손끝으로 느껴야 한다. 물고기가 미끼를 건드리는 순간 줄을 잡아당기면 열에 아홉은 물고기가 끌려 올라온다. 묵직한 녀석일수록 힘이 많이 들어, 줄을 당기면서 손이 बे지 않도록 주의 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라도 쉽게 강태공의 기분을 맛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물고기가 팔뚝만하다 보니 잡는 재미도 쏠쏠하다. 잡은 신선한 생선은 저녁 바비큐 요리로 맛볼 수 있다.

tip

Local Island Tour

다이빙&워터스포츠 센터가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로컬 아일랜드 탐방. 몰디브에서 단순히 '휴양'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스피드보트를 타고 몰디브인이 살고 있는 섬으로 짧은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작지만 학교, 우체국, 병원, 상점, 카페 등 있는 건 다 있는 사랑스러운 로컬 아일랜드 투어는 분명 이색체험이 되어준다. 색색의 컬러로 칠해진 거리의 화려함에 반하게 될지도, 짧은 여행을 통해 그들이 사는 모습과 문화를 만날 수 있다.





맛있는 식사와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노쿠 몰디브 리조트에 레스토랑과 바는 총 네 곳이다. 도착 라운지와 가장 가까운 팜스 레스토랑(Palms RESTAURANT)과 팜스 바(Palms Bar), 섬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타리 레스토랑(Thari RESTAURANT)과 타리 바(Thari Bar)다. 보통 대부분의 식사는 팜스 레스토랑에서 뷔페로 해결한다. 싱가포르, 대만, 일본, 몰디브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서 매일 다른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올인클루시브 타입일 경우에는 자리에 앉자마자 스태프가 바로 음료 주문을 받으러 온다. 몰디브에 왔으니 그 유명한 모히또를 마셔야겠지만, 주문 즉시 착즙해서 만들어주는 과일주스 또한 추천할 만하다.

해변에서 씨사이드 디너를 진행할 때도 있다. 밤을 밝히는 촛불과 붉은 천으로 덮인 테이블은 하루하루가 특별하길 바라는 노쿠의 바람을 보여준다. 기왕이면 맨발로, 발밑에 부드러운 산호 모래를 느끼며 식사하자. 어떨 때는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리면서 아이스크림맨이 나타나기도 한다. 망고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가득 퍼주는데, 입안이 단숨에 개운해진다. 섬 뒤편에 위치한 타리 레스토랑과 타리 바는 한적하고 조용한 편이다. 메인 풀과 함께 있으며 언제든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타리'는 몰디브어로 '별'을 뜻하는데, 밤에 찾아오면 더욱 아름다운 곳이다. 풀장 바닥에서 작은 조명들이 시시각각 다른 색으로 빛나는 모습과 하늘에서 쏟아질 듯한 별을 감상할 수 있다.

하루를 마무리 하는 Noku SPA & YOGA

야자나무와 수풀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노쿠 스파 센터는 딱 보기에도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다.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을 만큼 신비로운 느낌이랄까. 워낙에 인테리어가 내추럴해서 그런지 스파 빌라 옆에 핀 플라메리아 꽃도 일부러 장식해 놓은 조화처럼 보인다.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으면 스태프가 차가운 물수건, 히비스커스 꽃 한 송이와 차를 가져다준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며 원하는 스파 프로그램과 주의할 점, 강도, 피부 타입 등을 체크한다. 스태프를 따라 룸으로 들어가면 잔잔한 음악과 향긋한 내음으로 시작 전부터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낀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노곤한 하루의 피로가 단숨에 풀어지고, 어느새 몸도 마음도 차분해진다. 스파 프로그램 외에도 선셋요가, 아침 스트레칭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요가는 스파 센터 끝에 오픈형 데크에서 진행되며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순간에 시작된다. 가벼운 명상과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가벼운 동작이 주로 이어진다. 가만히 앉아서 가늘고 긴 호흡을 뱃다 보면 저 멀리 수평선 밑으로 지는 거대한 태양이 나타나 아름답다.





하얀 산호 모래가 눈부신 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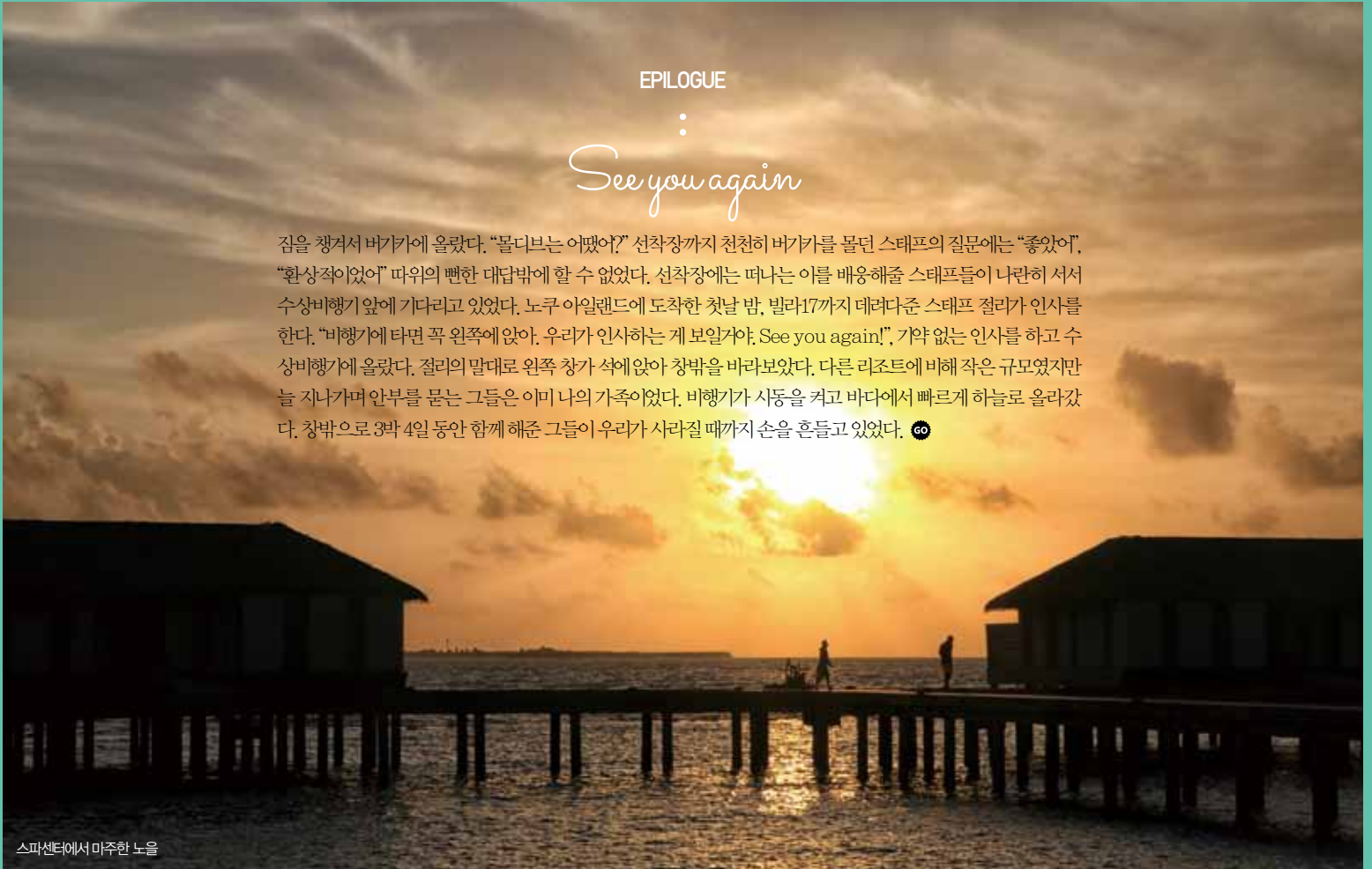


바다 위의 워터 빌라

EPILOGUE

See you again

짐을 챙겨서 버가가에 올랐다. “몰디브는 어땠어?” 선착장까지 천천히 버가가를 몰던 스태프의 질문에는 “좋았어”, “환상적이었어” 따위의 짧은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선착장에는 떠나는 이를 배웅해줄 스태프들이 나란히 서서 수상비행기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노쿠 아일랜드에 도착한 첫날 밤, 빌라17까지 데려다준 스태프 절리가 인사를 한다. “비행기에 타면 꼭 왼쪽에앉아, 우리가 인사하는 게 보일거야. See you again!”, 기약 없는 인사를 하고 수상비행기에 올랐다. 절리의 말대로 왼쪽 창가 석에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른 리조트에 비해 작은 규모였지만 늘 지나가며 인부를 묻는 그들은 이미 나의 가족이었다. 비행기가 시동을 켜고 바다에서 빠르게 하늘로 올라갔다. 창밖으로 3박 4일 동안 함께 해준 그들이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손을 흔들고 있었다. GO



스피센터에서 마주한 노을



필요할 때 언제나 나타나는 버가카와 스태프



웰컴 드링크와 쿠키



멀어져가는 수상비행기를 향해 인사하는 노쿠 몰디브 패밀러